

ESCO협회, 녹색교육기관 인증 받고 ESCO교육의 산실이 되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미래 국가성장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효율적으로 전파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전국 공무원훈련기관, 공공교육훈련기관, 민간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 녹색교육기관'을 공모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제 2조 2호에 따르면, 녹색성장이라는 의미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녹색성장기관은 이러한 기본법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다양한 에너지관련 정책 및 이슈를 넓은 범위로 전파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보다 친숙하게 접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0년 교육기관 지정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 48개, 2011년 16개, 2012년 11개 총 75개 기관이 녹색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 활발한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다.

글 / ESCO협회 서희정

(사)ESCO협회는 지난 3월 16일, 광화문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012년 녹색교육기관 인증서 수여식을 갖고 녹색교육기관으로의 첫발을 내딛었다.

협회는 기존 실시해오던 ESCO분야 교육의 내실화와 산업체 에너지관리자, 공공기관 및 지자체 에너지담당자, 일반 가정 등 각계각층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통해 각 부문별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에너지절약의 여러 방법을 널리 전파하고 ESCO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올바른 에너지문화의 생활화를 유도하고자 이번 교육기관 지정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기관 지정으로 협회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서 필요로 하는 ESCO분야 특화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해져 에너지절약산업에 대한 전문화와 ESCO업체의 역량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사용자의 저탄소 녹색상장에 대한 지식 배양 및 인식 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협회는 이번 녹색교육기관 지정을 계기로 교육사업에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교육 대상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보다 많은 교육생에게 다양한 녹색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교육 대상 기준을 3가지로 세부화해서 보자면 첫 번째,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대상의 교육이다. ESCO업체의 기술력과 경쟁력 강화를 첫 번째 교육가치로 삼고 실무와 사례 중심의 ESCO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인력 양성교육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두 번째는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에너지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기업단위의 현장실무자와 임직원에게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에너지절약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주고 대기업과 협력사 간의 녹색경영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효과적인 에너지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세 번째, 공공기관 및 지자체, 일반인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녹색교육과정이다. 에너지절약은 무엇보다도 실천이 중요하다. 에너지절약이 제5의 에너지라고까지 부르는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의 거시적인 의미에서 탈피하여 지금 현재의 에너지이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업무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가정 및 직장에서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제공하고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2012년 협회는 <표 1>과 같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ESCO사업이 2013년 ESCO성과보증계약방식으로 전환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ESCO성과보증계약에 필수적인 M&V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 싱가포르 M&V해외교육 수료, 국내 4회 M&V교육 개최에 이어 지난 2월 대만ESCO협회(TESA)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대만의 M&V전문교육기관을 방문하여 해외M&V교육을 시행하였다. 이 밖에도 해외 M&V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업체 및 실무자를 위해 앞으로도 M&V에 대한 정기적인 국내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ESCO이슈, ESCO금융기법, ESCO신규업체를 위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비정기적인 교육도 개최할 계획이다.

<표 1> 2012년 협회 교육과정 개설(안)

과정	인원	일시	대상	내용
ESCO M&V교육	50명	분기별개설(5, 9, 11월)	ESCO 임직원	M&V개요, 에너지진단, ESCO Case study 등
ESCO 기초교육	50명	6, 8월	ESCO 임직원	ESCO 정책 및 동향, ESCO 관련 기본내용 등
ESCO M&V해외교육	30명	2월(실시 완료)	ESCO 임직원	IPMVP, ESCO 우수현장방문 등
ESCO 보수교육	50명	5월	ESCO 임직원	ESCO 금융, 온실가스검측 등

※위의 내용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012년 3월, 협회가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난 만큼 보다 공신력 있고 신뢰성 있는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ESCO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